법주사 금강계산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보살계 수계는 불교 신자들이
보살의 길을 걷기 위해 받는 계율 의식입니다.
보살계를 수지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중생 구제라는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보살계를 수계하는 것은
단순히 계율을 받는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중생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줍니다.
계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삼계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을사년 윤년을 맞아 불자님들께서는 가장 법답고
성스럽게 봉행되는 이번 법주사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에
참석하시어 연비를 함으로써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삼세제불 앞에서 맹세코 성불하겠다고 서원하시어
새로운 삶의 기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9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보살계 동참보시** : 1인 **3**만원
- **접수안내**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신청)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9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무고안락無苦安樂의 최고의 이상세계로서
과거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아미타불이 되어서
원력으로 건설하신 세계이다. 지구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
나뭇잎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며 삼귀의 사홍서원을 설법하고
항상 천녀가 음악을 연주하고 과일을 봉양하며 가릉빈가와 공명조가 밤낮으로 노래한다.
팔공덕수에는 연꽃이 향기롭게 피어서 악한 냄새를 제거하며
모든 근심과 고민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며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다.
수명은 빛과 같이 무량이며 옷과 과일과 음식 등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隨念而至)진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해서 나무와 새와 코끼리 등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
극락세계에는 염불하고 수행해서 현신의 몸으로 갈 수 있고
죽어서는 기도의 원력과 공덕으로 갈 수 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9 | 통권 404호



2 **벽화이야기** 극락세계
4 **이달의 법문** 몸은 풀어도 마음의 정진은 더욱 단단히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7 **주지스님 법문**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정덕 스님
10 **수행여화** 정원에는 휴일이 없다 현진 스님
12 **걸망메고** 순례의 의미와 마음가짐 무진 스님
14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일곱 번째 고광 스님
17 **법주사 템플스테이**
18 **합창단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19 **추석합동차례안내 / 법주사 공양미**
20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1 **승려복지 후원 안내**
22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23 **천년의 향기**
24 **법주사 금강계산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9월호 통권 404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하안거 해제를 맞이하며

몸은 풀어도 마음의 정진은 더욱 단단히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하안거 해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며 육신의 피로도, 마음의 번뇌도,
고요히 안으로 가라앉히고자 했던 그 정진의 시간이 어느덧 결실을 맺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중 스님들, 그리고 기도와 공양으로 함께한 모든 불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들에게 안거安居를 정하여 우기에는 한 자리에 머물러 수행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수행을 단단히 다지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워 작은 벌레라도 밟지 않게 하고자 하신 자비심의 표현이자,
외부의 일은 내려놓고 마음을 곧게 세우라는 큰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안거는 여름 석 달 동안 자신을 다스리고 번뇌를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수행자는 몸을 고요히 하고 말은 줄이며, 오직 내면을 향해 걸어갑니다.
스님들은 조석으로 예경을 올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경전 독송과 참선,
간경에 힘을 쏟으며 스스로의 업장을 성찰하고 맑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곧 해탈로 가는 인고의 길이며, 진리의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석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를 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거는 수행의 한 과정일 뿐,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정진은 삶 전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네 생사 또한 그 정진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여미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는가?"
해제는 몸은 풀되 마음을 풀지 않는 날입니다. 다시 계를 새기고,
다시 삼보에 귀의하며, 다시 오늘의 삶을 도량 삼아야 할 날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니, 눈앞의 찰나에 깨어 있으면 거기가 곧 정토요 도량입니다.
수좌 스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해제 이후에는 자칫 긴장의 끈이 풀리고, 정진의 맥이 끊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안거 중에는 대중의 기운에 의지해 참았던 말과 행동이
해제와 함께 스르르 흘러나오기 쉽습니다. 그 한순간의 방심이 다시 삼독의 문을 열고,
오래 쌓은 수행의 공덕을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제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 몸짓 하나, 마음 한 생각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해제를 잘 맞는 길이며, 출가의 참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와 공양,
정성으로 안거를 함께한 소중한 도반입니다.
새벽마다 촛불을 켜고 부처님 전에 절하며, 수좌 스님들을 위해 축원을 올리고,
도량을 청소하고, 공양물을 올리는 그 공덕이 어찌 작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정성이 도량을 맑히고,
스님들의 수행을 받들어 오늘의 해제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해제일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한여름 동안 여러분의 신행 또한 한결
단단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정성으로 가정도 평안하시고, 마음도 한층 깊어졌으리라 여깁니다.
불교는 결국 수행이고, 수행은 곧 삶입니다. 거창한 기도, 대단한 법문도 좋지만, 삶의 자리에서
자비로운 마음 하나, 욕심 하나 줄이는 실천 하나가 진정한 수행의 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눈물짓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받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이, 가족에게 외면당한 이… 그들에게 연민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전하십시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삶이고, 실천이며, 공덕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려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수행입니다.
오늘 해제를 맞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맑은가?"
"나는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묻고 산다면,
그대는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수행자요, 불자의 길을 걷는 이입니다.
대중이여,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 몸 받기 어려우나 금생에 받았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나 이제 만났으니,
이 몸 다할 때까지 불법 안에 살리라." 이 서원으로 해제를 맞이하고,
해제 이후에도 매일 매일을 안거 삼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정진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더욱 밝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한 계절이 저물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법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정진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절을 오래 다니고,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와 봉사에도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물음이 마음 한 구석에 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불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계戒'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살계'는 단지 출가자만의
계율이 아니라, 재가불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바탕이자, 자비를 일상에서 살아내기 위한
다짐입니다.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단지 내 안의 괴로움만을 덜기 위해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세상과 함께,
모든 중생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큰 서원을
품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로 부처님이
걸으셨던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신 후,

깊은 선정과 열반의 안락에 머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45년 동안
말씀하시고, 걸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타행利他行, 남을 이롭게 하는 실천, 이것이
곧 보살의 길이며 그 길을 걷겠다는 서원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경전 중에서도, 특히《범망경》에서는
보살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보살이 지녀야 할 열 가지 큰 계율과
사십여 가지 실천 규범을 제시하시며,
"이 계를 지니는 이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지닌 사람이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중국을 거쳐,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큰스님들에 의해 널리 퍼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선禪과 계戒를 함께 닦는
수행전통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재가불자들에게도 보살계는
더 이상 낯선 계율이 아닙니다.
법주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많은 불자님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나의 삶 안에 있었던 자비심과
신심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순간입니다.
보살계는 무언가를 강제로 금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내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자비로운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품은
생각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되새기며 사는 것이 바로 보살계의
실천입니다.
또한 보살계는 나를 위한 서원이자, 동시에 타인을
위한 서원입니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단지 내가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입을
조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실과 신뢰를
전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나누는 것은, 내 안의 평화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보살계는
'계율'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속은 곧 자비이며
실천이고 지혜의 길입니다.
보살계를 받은 많은 불자님들이 말합니다.
"계를 받은 이후,
내 삶이 이전보다 단정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계를 받았다는 마음이 있어
더 간절하고 진실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다,
보살계가 떠올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계의 공덕이며 유익함입니다.
삶의 중심이 생기고, 수행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마음은 가볍고 정진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이웃에게 향기를
전하는 수행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예를 올리는 것은,
단지 공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과 마음이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을 바르게 세우고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계율이며, 그 가운데 보살계는
재가불자에게 가장 존귀한 서원이 됩니다.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언젠가 마음이
여물었을 때 꼭 한 번 서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를 받은 분들은 그 서원이 헛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한순간을 더욱
성찰하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율을 따라 사는
그 길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자비심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법주사 도량에서 더욱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마음 모아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정원에는 휴일이 없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법회 없는 일요일이라 모처럼 일찍 쉬어볼까 했더니 그것도 여의치 않다. 요 며칠 가뭄이 심해 화초에 물 주는 일은 빼먹을 수 없다. 내가 귀찮다고 하루 외면하면 시들거나 꽃송이가 타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원 일정은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관심을 주며 돌봐야하는 것이다. 이웃 마을 꽃 친구가 선물로 주고 간 '우창꽃' 화분이 있는데 어제저녁 고개를 축 숙이고 있었다. 다른 일에 밀려 물주는 일을 깜빡했더니 목이 말라 그런 것이다. 내가 관찰하지 못했다면 그 화초는 줄기가 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정원의 식물들은 주인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아침을 맞이하면 내 나름의 순행로巡行路가 있다. 나는 그 동선을 따라 산책하며 그날그날의 정원 상태를 살펴본다. 어쩌다 외부 일정으로 그 과정을 생략하면 다음 날이면 꼭 표시가 난다. 그 길을 걸을 때 낙엽은 주워내고 풀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뽑곤 하는데 손길 안 간 흔적이 남는 것이다. 목수국 근처로 옮겨 심은 삼색 버들 묘목은 벌써 절반이나 죽었다. 며칠 여행 다녀온 사이에 보살피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러하므로 마음 놓고 자리를 오래 비우지 못한다. 주인 발길이 안 간 곳은 어떻게든 표시가 나는 법이다.

오늘 오후에도 몸을 씻고 쉬려다가 비닐하우스 작물이 생각나서 조루로 물을 주고 왔다. 주말엔 그곳 봉사자가 없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어제도 목말랐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오늘을 그냥 넘겼더라면 고춧잎은 이미 잎이 말랐을 것이다. 이러하기에 정원에서는 휴일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둘러보면 천지에 일거리가 가득하다.

정원 산책을 하다가도 열 발짝을 못 움직일 때가 많다. 좀 걷다가 풀을 뽑고, 또 걷다가 풀을 뽑느라 계속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인은 눈을 감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생겼다. 손님들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인은 잠복해 있는 풀까지 알아내기 때문. 아침에도 법당 옆 화단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망초풀 하나를 찾아내고 쏙 뽑아냈다. 그곳에서 용케 살아남아 키를 키우고 있었는데 주인 눈에 딱 걸린 것이다. 휴일에도 이렇게 풀과 주인은 서로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여름의 내 손가락엔 언제나 풀물이 들어 있다.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산책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 풀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큰 풀은 보이는 그 즉시 뽑아내야 한다는 신조라서 장갑 챙기러 갈 여유가 없다. 너 딱 기다려! 하고 작업준비를 하고 나타나면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를 때도 있거니와 오며 가며 뽑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내가 언제 뽑아도 뽑아야 할 거라면 눈에 띄는 즉시 뽑는 게 유리하다.

남의 정원을 방문했을 때 비질을 하고 있거나 호미를 들고 있으면 영락없이 그는 주인장이다. 설사 누군가가 일손을 보탰다 하더라도 전체의 표정은 주인의 성품이 스며들기 마련이라 주인의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근래에 우리 정원이 충청북도 민간정원으로 지정 등록되면서 방문자들에게 '정리 정돈이 상품이다'는 주제로 대화를 풀어가고 있다. 꽃이 아무리 풍성해도 주변 정리가 되지 않고 어수선하다면 그 향기가 맑을 리 없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원을 가꾸어 온 세월을 단정적으로 말하라면 '정리 정돈'했던 시간이다. 정원 곳곳이 너저분하고 복잡하다면 그 공간은 우리에게 평화와 고요를 선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경이 되는 셈이다.

나무를 심고 꽃만 심는다고 훌륭한 정원이 아니다. 그 공간을 잘 관리하고 맑게 유지하는 것은 명품정원의 필수요건이다. 지금은 '꽃이 사람을 부르는 시대'다. 꽃 하나를 잘 가꾸어도 그 향기 따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정원은 이제 포교의 한 방식이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봄날 화엄사의 홍매 한 그루가 전국의 상춘객을 불러 모으고 있질 않은가. 열 명의 스님이 모여도 할 수 없는 일을 꽃나무가 해내는 것이다. 이게 정원이 지니는 치유의 힘이며 영적인 에너지다. 연못을 파면 개구리가 모이는 것처럼, 사찰에 아름다운 화목이 즐비하면 저절로 사람이 찾아오는 시대이기에 나는 과감하게 '정원은 미래의 경전'이라고 주창하며 꽃과 나무로 전법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소신이 입소문으로 전파되어 여기엔 꽃구경 오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근래엔 잔디 깎고, 풀 메고, 약 치고, 물 주고... 이런 일의 반복이다. 누가 그랬다. 우리 정원은 물과 바람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어쩌면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여태껏 하루라도 정원 일을 미루거나 쉰 날이 없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더위에 몸이 지쳐도 그날의 일과를 완성했다. 봄날의 정원은 어느 곳이든 화려하고 다채롭다. 그러나 이즈음의 정원은 손길 놓으면 온갖 풀이 밀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여름 정원이야말로 주인의 진가가 한껏 발휘되는 계절이다. 그리고 인욕과 하심의 계절이기도 하다. 무덥다고 포기하거나 미루면 단정한 정원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제는 지인들에게 '공부와 정원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건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과제는 늘어나고 잡풀들의 습격 앞에 항복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기에 여름날 정원은 정말 휴일이 없다.

순례의 의미와 마음가짐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나무아미타불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 수행하시던 터전을 직접 밟아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신심信心을 더욱 굳건히 하고 수행을 심화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성지순례의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그 가르침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지를 참배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신심 깊은 사람들이 반드시 참배해야 할 네 가지 성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탄생지, 깨달음을 이룬 곳, 최초로 법을 설한 곳, 그리고 열반에 든 곳이다."

이 네 곳은 곧 룸비니(탄생지), 보드가야(성도지), 사르나트(초전법륜지), 쿠시나가르(열반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이 길을 밟는 것은,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와 같이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더욱 생생히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지순례의 의미는 결코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에도 천 년이 넘는 역사 속에 수많은 성지와 도량이 있습니다. 각 사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 땅에서 꽃피고, 시대와 함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주사 역시 통일신라 시기부터 이어진 장엄한 역사와 수행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량을 직접 방문하고, 그 안에서 기도와 예불을 올리며 부처님의 법향을 느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참회'와 '정진'입니다.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성지는 그 자체로 수행의 터전이기에, 참배하는 순간순간이 기도이고 수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업장을 녹이고, 선근공덕을 쌓으며,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또한 성지는 수많은 수행자와 신도들이 발길을 이어온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쌓인 정성과 기도의 힘이 가득합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뜻 깊지만, 여러 사람의 원력과 수행의 기운이 모인 성지에서의 수행은 더욱 깊고 단단한 울림을 줍니다. 마치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함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성지의 기운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맑고 경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성지순례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성지순례는 결코 단순한 관광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수행을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과 공경의 마음입니다.

성지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발자취가 서린 자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참배해야 합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며, 부처님과 도량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둘째, 참회와 정진의 마음입니다. 순례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서서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발심으로 수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셋째, 자비와 회향의 마음입니다. 순례의 공덕을 나만의 이익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함께 건지는 보리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례의 길 위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마음을 안으로 모아 기도와 염불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순간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발걸음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결국 성지순례는 '나는 수행하러 간다'는 발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단순한 관광객의 시선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가르침이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걷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신심을 키우고, 자비심을 확장하며, 깨달음을 향한 원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에는 그곳에서 받은 감동과 기운을 일상의 수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꽃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순례의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행위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고, 자비와 지혜를 넓혀가기를 발원합니다.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여덟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얼마 전 법주사는 을사년 하안거를 해제했습니다. 안거 내내 그렇게 찜통 같던 더위도 해제와 함께 신기하게 해제하였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하게 가사 장삼을 두르고 새벽 예불을 드리러 법당에 갔다가 쌀쌀한 날씨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와 폭우도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왔다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더우면 더워서 짜증 났고 추우면 추워서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 더위와 추위마저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고….

오늘은 법설의설경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느낌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느낌에 대한 의설義說 (거짓 주장)을 경전에선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緣觸受者 云何為受? 謂三受 苦受 樂受 不苦不樂受.

촉을 연한 게 수受라는 자는 무엇을 느낌〔受〕이라고 일러주는가? 삼수三受를 이르면서, 괴로운 느낌〔苦受〕, 즐거운 느낌〔樂受〕,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이라고 한다.

필자는 절에 다니면서 느낌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외도外道가 말했던 거짓 주장입니다.

잡아함경엔 두 수행자가 느낌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수행자는 느낌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의 두 가지뿐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거기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아침에 시작했지만, 저녁이 되도록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끝내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두 수행자는 끝내 결론을 얻지 못해 부처님께 가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부처님은 둘 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느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건에 따라 천 가지든, 만 가지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괴롭다는 느낌과 즐겁다는 이분법적인 느낌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럼, 언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선정(삼매)을 경험하지 않으면 피부로 확 다가오지 않기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도의 4선四禪'에 이르렀을 때 집중하던 대상을 완전히 버렸을 때 얻어지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느낌을 2가지로 보았던 수행자는 4선에 이르지 못했고, 불고불락不苦不樂의 느낌을 말했던 수행자는 4선을 경험했기에 느낌을 3가지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외부 대상에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거기에는 '즐거운 느낌'이 그 속에 들어 있기에 즐겁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괴로운 느낌'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대상에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대상이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즐겁게 느껴지기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접촉과 함께 얽혀서 드러나는 것(觸緣受)'이라고 밝혔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머리에 각인된 느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즐거웠던 느낌이 미워하는 느낌으로 바뀌어 원수를 쳐다보듯 경멸하기도 합니다. 만약 느낌이 대상에 포함되

어 있다면, 좋은 것은 언제나 좋고 싫은 것은 언제나 싫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접촉(觸)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단지 3가지 느낌으로 대상에 내재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번뇌가 108가지라면서 '108번뇌'를 가르칩니다. 번뇌를 108로 보는 이유는 "6(眼, 耳, 鼻, 舌, 身, 意)×3(苦, 樂, 不苦不樂)×2(好, 惡)×3(過去, 現在, 未來)=108(煩惱)"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산도 사실은 의설(義說 : 괴변)에 근거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번뇌는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생(所有一切衆生)"에겐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느낌은 3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법설의설경에서 고구정녕苦口丁寧하게 설명했음에도 잘못된 의설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서이고, 또한 경전에 대한 의심을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이곳저곳에선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일지라도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역대의 조사들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사들이 제시한 화두는 이런 의설이 주장하는 사견邪見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화두 타파의 핵심입니다. 즉 화두가 타파되었다는 말은 정견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생명은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으로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끝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수행하면 깨닫는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깨닫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애써가며 수행한다고 깨달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이니 사유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면 그야말로 깊이 사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禪을 사유수思惟修(사유해야 닦아지는 것)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단순하게 3가지라면, 굳이 입 아프게 가르치지 않아도 살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허접한 생각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우기기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12연기緣起에서 삼사화합三事和合의 촉觸과 느낌(受)이 서로 얽힌다고 말씀하셨으니, 느낌은 3가지가 아니라 명색名色을 인식認識하는 정도에 따라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우면 더워서 싫었고
추우면 추워서 싫었건만
문밖이 저승이니
그 더위와 추위도 좋았네.
법주사 응향각에서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 24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마음을 채우다 …



당일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저녁/새벽예불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108배 및 염주 만들기
–향기명상 (Aromatherapy)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선명상 (1박2일, 2박3일)
–세조길 걷기 명상
–수정봉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법주사 합창단 모집



법주사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로서 법주사 사부대중과
화합하고 기도 법회 및 각종 신행활동에
동참하며 부처님전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올리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2025. 9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7.10 생전예수재 6재	2 11 합창단법회	3 12	4 13	5 14	6 15 보름 / 하안거해제 우란분절(백중) 광명진언기도
7 16 미륵재일	8 17 생전예수재 회향 다도반법회	9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0 19	11 20	12 21	13 22
14 23 정일대종사다례	15 24 관음재일	16 25	17 26	18 27	19 28	20 29 다라니독송기도
21 30	22 8.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다도반법회	23 추분 2	24 3 신중기도 회향	25 4	26 5 월산대종사다례	27 6
28 7	29 8 약사재일	30 9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추석합동차례 안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명절날 가정에서 차례를 모시기
어려우시거나 부처님 도량에서 인연영가님들의 차례를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추석합동차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선망조상님들과 인연있는 영가님을 위해 정성으로
차례를 모시고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며 불보살님의
가피로 극락왕생의 길을 내는 공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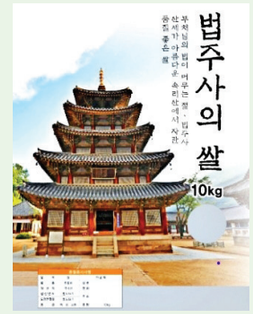
차례일정 2025년 **10**월 **6**일 월요일(음 8월 15일 추석날) 대웅전 **10**시
동참보시 한가족 **10**만원

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보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비나눔의 실천에 함께하신 많은 신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라. 병든 이를 치료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외로운 자를 위로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다.

미륵재일기도 – 9월 일정 : 9월 7일 일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9월 일정 : 9월 6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9월 일정 : 9월 9일 화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9월 일정 : 9월 20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9월 일정 : 9월 22일 월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승려복지 후원 안내



법주사에서는 재적스님들께서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구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직 수행에 전념해 오신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실 수 있도록 의료비와 수행비 등 스님들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본사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심 있으신 불자님의 계좌정기후원 참여와 승보공양 보태진다면 승려복지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 올리는 대상 중에서 부처님과
수행하시는 분들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이 제일 크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수행하시며 대중을
위해 힘쓰신 스님들을 위해 법주사 신도님들의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양하시는 공덕으로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밝은 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복된 일상 되세요!

■ CMS후원 감사한 분들

대전 태전사 옥천 용암사 법주사 보현회 법주사 지장회, 부루나합창단 전감재 전기랑
민혜숙 박근식 최성락 김규영 이춘원 김명숙 박노근 연용덕 최규연 김부임 김길환 변채영

승려복지CMS후원계좌 :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가사袈裟는 부처님의 옷이자 보살의 법의이며 스님의 법복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의식주인 음식, 약, 침구와 함께 부처님 당시부터 재가자가 승보에게 올리는 가장 귀중한 공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의 표상입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교를 꽃 피워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모든 공양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설가사공덕경에서 "가사불사를 발원한 이는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백 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며 가사불사의 공덕을 전하셨습니다.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는 불기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황금가사를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종단 최고의 가사명장이시자 법주사 율주이신 무상큰스님께서 평생의 원력으로 삼으셨으며 법주사의 역사와 불자님의 생애에 길이 남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잊혀져가는 불교의 전통을 지켜내고 한량없는 거룩한 복덕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청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